

한강신도시 연합회 간담회 답변자료

□ 한강신도시 연합회 요청사항

1. 심야시간대 폭주차량, 오토바이 단속 건

1)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

- 소음 유발 불법개조 차량 및 오토바이 합동단속실시.
-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 결과 소음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확인한 차량과 오토바이가 불법개조가 아닌 출고시 승인 받은 정상적인 형식으로 단속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
- 폭주소음차량 단속 관련하여 돌발적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따른 교통경찰관 안전확보가 가능한 제한적인 도로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.

2) 교통법규위반 차량 및 오토바이에 대해 경각심 고취위한 홍보 병행

- VMS에 폭주차량에 대한 법규위반 경고문 안내 송출 예정.
- 신호위반, 인도주행 등 배달대행업체 교통법규준수 홍보 및 우체국 교통법규준수 공문 발송 등 소음 외적 교통법규준수 홍보 시행.

2. 한강로구간단속 건

1) 시도5호선 합류지점으로 이동설치

- 김포한강로의 특성상 신도시 주민만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 산업단지(학운,검단), 공장지대(하성,월곶,대곶), 인천, 강화도 방문차량 등 대형차량 및 타지역 차량의 이동이 많은 도로로 한강로를 이용하는 운전자에 대해 제한속도 인식 및 규정속도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구간을 선정.
- 한강로 교통사고 발생 3년 평균대비 19년 구간단속 후 교통사고 발생은 -15건 25.4% 감소, 인적피해는 -9명 22.5%감소.

2) 제한속도를 90km/h로 상향

- 김포한강로는 설계당시 최고속도가 80km/h로 설계되었고, 제한속도 80km/h로 운영되고 있는 올림픽대로와 연계성 및 사고예방, 교통사고 발생시 치사율을 줄이기 위해 80km/h로 운영하고 있어 속도상향은 어려움.

- 3) 용화사IC 이후로 진입하는 차량들 칼치기 등 과속으로 사고 위험 증가
- 현재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하여 구간단속 중간 진·출입하여 과속하는 차량 단속 중.
 - 김포시청과 협의하여 구간단속카메라 추가설치 고려

4) 수시로 이동과속단속 요청

- 현재 한강로 상 이동식단속카메라 활용하여 과속차량 단속
 - ※ 19. 3. 20.~ 현재 총 107건 단속 그중 초점이탈 등 제외 84건 과태료 처분
 - ※ 김포관내 이동식단속카메라 부스 15개소 중 한강로 4개소 운영

5) 계도차원의 음주단속 요청

- 한강로 램프 및 한강로 진출입 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차량을 대상으로 선별적 음주단속 실시 중

3. 과속구간 신호,속도, 감시카메라 설치건 외

- 1) 김포한강3로 중흥리버티 우남 앞 사거리
- 2) 마산역사거리
- 3) 한강매트로 빌딩 앞 사거리
- 4) 운양푸르지오 앞 사거리

- 설치 요청 장소가 카메라 간 일정구간(2km이상)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.

※ 운양푸르지오 앞 사거리의 경우 운양동 방향(한강로방향) 설치 가능

- 19년 국비예산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련 경기남부청 31개 경찰서에서 총 105대를 요청하였지만 25대만이 배정 되는 등 설치예산 부족.

교통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관련

□ 설치장소 선정기준

○ 법적 근거

교통단속처리지침 제37조(무인단속장비설치 등)①무인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·신호·전용차로 등 법규위반 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른 지점에 이전 설치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○ 설치지점 기하구조 고려 사항

- 직선로 : 횡단보도, 교차로, 진·출입로 등 시설물의 100~300m 전방
- 곡선로 : 곡선도로 시작 전 100~300m 범위 직선도로상
- 내리막로 : 도로의 끝 지점 전 100~300m 범위 직선도로상
- 과속억제를 위해 일정간격 유지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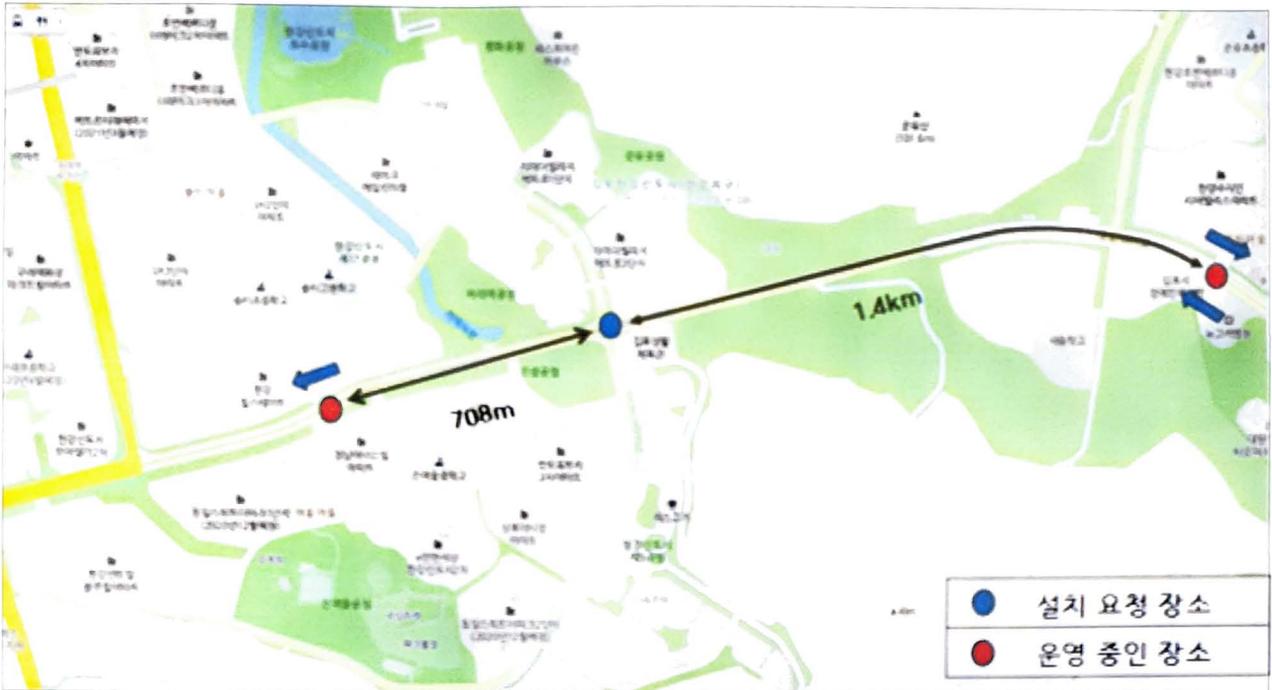
※ 고속도로 10km, 일반도로 2km 이상

□ 설치 요청 지역

○ 김포한강3로 중흥리버티 우남 앞 사거리



○ 마산역 사거리



○ 한강매트로빌딩 앞 사거리



○ 운양푸르지오 앞 사거리



□ 설치 요청에 대한 경찰서 의견

- 설치 요청 장소가 카메라 간 일정구간(2km)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.
- 19년 국비예산 무인단속장비 설치 관련 경기남부청 31개 경찰서에서 총 105대를 요청하였지만 25대만이 배정 되는 등 설치예산 부족.